

시

최용종

변치 않는 사랑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불태우듯 작열할 때도

그리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요히 서 있는 배롱나무꽃

보고픈 마음 가득 차오를 때
진분홍 꽃으로 피어났다가

그리움이 사무칠 때는
붉은색 꽃을 피워내는
배롱나무는 변치 않는 사랑이다

묵묵히 서서 100일을 기다리며
햇살이 나올 때까지 태양을 붙잡는다
뜨겁게 흘러가는 여름 시간을 다독인다.

배롱나무꽃은 아름다운 자태로
지나는 나그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바람결에 붉게 쏟아지는 꽃잎은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가을날의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약력

▲문학춘추시등단.시낭송가
▲문학춘추작가회원.광주문인협회 이사
▲광주YMCA총회원
▲고려대명강사(공자).동국대자연치유사 교수



시

양승민

산 같은 아버지

마음속에 태산보다 듬직한 산이 있다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높은 산이다

큰 나무가 울창한 숲은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쉼터였고
바람의 분탕질을 막아주는 방풍림이었다
내가 살아가고 쉴 수 있는 삶터요 쉼터였다

한없이 높아 보이던 산은
자식 수와 몸집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점점 낮아졌다
나무들은 베어져서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쓰였고
산은 날이 갈수록 험박고 수척해졌다
휘어버린 능선은 자신의 무게도 지탱하기 어려워졌고
마침내 마음속에서만 그리는 산이 되고 말았다

자꾸 눈에 밝히는 그리운 산
추억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린다

이제는 나도 노년기 산이 되어
삐걱거리는 무릎으로 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나이
자식들에게 산 같은 존재로 여겨지길 바라지만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되지 않으려 한다

비바람 견디며 듬직한 산이 되어주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약력

▲‘신정문학’ 등단.남명문학상 최우수상 등 4회
▲산해정문학상 대상.왕비옹녀 전국문학상 대상
▲토방구리 문학상 대상.반려동물 다카시 대상 외 다수
▲그림시집 : ‘늦깎이의 좌충우돌’, 그림시조집 : ‘자연의 섭리대로’



시

조의연

곡선과 직선 사이에서

여자의 몸은 곡선이다
부드러움이다
둥그렇게 흘러내리는 여자의 몸
곡선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큰 산봉우리다
항아리는 곡선이다, 아이를 품은 여인
햇살과 짓궂은 바람을 동글게 끌어안는다
아이들의 정열대는 웅얼이가 달의 전설이 되는
여자의 둥그런 몸.

강물은 휘돌아 흘러가고
할머니의 몸은 직선이다
곡선의 몸은 간곳없고 기억자로 굽은 허리
어그러지고 휘어진 직선이다
쪼그라진 깡통.
둥그런 마음 일평생 다 퍼주고
할머니는 바른 길이다, 고전이다
곡선을 잃어버린 쪽 퍼진 길목에서
마지막 남은 하늘 가는 길은 직선이다
애들러가는 길이 없는 마지막
모퉁이 길이다.

약력

▲1995년 전남일보 신춘문에 詩 당선
▲1998년 농민신문 신춘문에 詩 당선
▲수상 : 광주문학상, 우송문학상, 동서파문학상, 화순문학상
▲시집 : ‘공이 굴러가는 쪽’ 외 5권



수필

정명희

어머니와 냄비

친정 부엌 한쪽 구석에 냄비가 놓여 있다.
언제부터 저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도 가물
가물하다. 세월에 닳아 때깔도 없고, 손잡이
도 헐거워졌다. 바닥에는 오래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다. 한때는 반짝반짝 빛났을
냄비가 이제는 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두 손
을 놓고 한가롭게 쉬고 있다.

저 냄비를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의 많은
추억들이 떠오른다. 이 냄비는 지지고 볶고
끓이고 데우며 식구들의 밥상의 중심을 차지
했다. 식구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냄비부터 불 위에 올렸다. 아침이면 밥 냄새
가 났고, 저녁이면 국 끓는 소리가 났다. 무언
가 맛있는 것을 해 먹는 날이면 냄비 뚜껑이
먼저 들썩였다. 그 모든 소리 뒤에 어머니와
냄비는 우리 집 부엌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 무엇을 먹었는지 일일이 기억
하지 못하지만, 냄비 바닥에 밴 흔적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어느 날 대전에 사는 막내가 새 냄비를 사
가지고 왔다.
“엄마, 이거 새로 쓰세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냄비였다.
그런데 막내는 현 냄비를 보자기에 찌기
시작했다.
“그건 뭐 하려고?”
“내가 가지고 갈게.”
“어디다 쓰려고?”
“캠핑할 때 쓰려고.”
나는 현 냄비를 한 번 쳐다보고 막내를 쳐
다봤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캠핑에 쓰겠냐?”
“걱정 마소.”
막내는 대답 대신 씩 웃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그날 저녁
막내에게서 사진 한 장이 카톡으로 왔다. 나
는 사진을 보다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
았다. 삼부자가 나란히 서서 냄비를 쓰고 있
었다. 현 냄비가 모자가 되어 있었다. 헐거워

진 냄비가 머리 위에 얹전히 올라가 웃음을
퍼내다니, 이게 캠핑용 냄비라더니, 허 참, 나
는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드렸다.어머니도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웃으셨다.
“왜 가지고 갔는가 했더니 잘 어울린다.”
“엄마, 이런 모자가 세상 어디에 있어.”
“그러 냄비가 올 손자들 머리에 올라가 부
렸으니 출세했다.”
“오메, 맞네, 우리 엄마 부녀회장 하듯이,
저 냄비가 출세길이 환해 부렸구만.”
부엌에 있을 때 낡고 불품없어 보이던 냄
비다. 그런데 아이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
니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였다. 나는 그제야
냄비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생각했다. 어머니가 부녀회장을 맡아 하시면
서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
여 식생활 개선 교육 있는 날은 집을 교육 장
소로 내어주기도 했다. 교육이 끝난 뒤 어머
니는 우리 먹을 간식을 챙기셨다. 그때도 냄
비는 어머니 곁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어머니가 새 냄비를 보며 말했다.

“예전 것이 좋구만 뭐하려고 바꿨는가 모
르겠다.”
“엄마 세련되고 좋구만.”
“아이가 세련이 두 번만 찻다가는 우리 집
냄비 다 바꾸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또 웃었다.
새 냄비는 반짝이고 깨끗했지만, 어머니
손에는 아직 현 냄비가 남아 있었다. 어쩌면
새 냄비에는 없는 것이 현 냄비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막내는 집에 왔다 가
면 그냥 가지 않는다. 문짝이 삐걱거리면 손
보고, 망가진 것이 있으면 고쳐놓고 간다.
“엄마는 좋겠어.”
어머니는 전화로 그것을 하나하나 자랑하
듯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한마디를
덧붙인다. 좋아서 하는 자식의 일을 굳이 말
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좋아하
지도 못하는 목소리다.
“애쓰다.”
나는 어머니의 부엌을 자주 다니며 정갈하
게 치운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에게 해준 것

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아
마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그 시절을 지나는
냄비만큼 손바닥은 닳고 세월의 주름이 남았
다. 어머니 삶이란 손때 묻은 가족의 체취를
맡으며 행복을 채워내셨다. 어쩌면 냄비의 쓸
모는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손에서 손자의 머리로, 부엌에서 캠핑장으로.
그 모습을 보고 웃는 어머니 곁에서 오래된
냄비. 어머니의 세월을 맡았어 데려와 이제는
우리 가족의 지난 시간을 끌어내고 있다.

약력

▲한국수필 신인상, 서정문학 시부문 신
인상
▲동서문학상 동시 당선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올해의 작품
상.광주전남아동문학상 수상
▲수필집 : ‘삼월에 주는 눈의 왈츠’
▲동시집 : ‘병아리 한마리 키우고 싶다’ 외 다수
▲그림책 : ‘나무가 준 선물’ 외 다수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